

버섯은 식물일까 동물일까

글_조덕현 우석대학교 교수 사진_지성사



버섯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식물과 같고, 영양분을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물과 같다. 사람들은 버섯이 한 곳에서만 생활하고 번식 방법을 식물의 씨앗처럼 포자(흫씨)로 번식하기 때문에 버섯을 식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버섯과 식물은 영양분을 얻는 방법이 전혀 다르고 자연계에서의 역할도 완전히 다르다. 식물은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지만 버섯은 다른 생물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우리는 식물이 엽록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녹색식물이라 부른다. 녹색식물들은 무기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 생활하는 독립영양 생물이다. 그러나 버섯은 스스로는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풀이나 나무 같은 식물체에 붙어서 풀이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분해하여 생활한다.

따라서 식물은 생태계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생산자라 할 수 있고 버섯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자연으로 되돌리는 환원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원자의 역할을 하는 생물에는 버섯 외에도 세균, 곰팡이 등이 있다.

- ① 세발버섯 ② 게발톱버섯 ③ 국수버섯 ④ 피꼬리버섯 ⑤ 들주발버섯 ⑥ 말뚝버섯 ⑦ 헛비늘목이 ⑧ 말뚝버섯 ⑨ 목장말뚝버섯 ⑩ 찻잔버섯 ⑪ 제주쓴맛그물버섯 ⑫ 먼지버섯 ⑬ 갈때기버섯 ⑭ 파상망해파리 ⑮ 접시버섯 ⑯ 신령버섯

다양한 버섯의 모양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

첫째, 송이나 표고와 같은 식용 버섯은 자루가 세로로 찢어지는 데 반해 독버섯의 자루는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독우산광대버섯과 삿갓외대버섯 등은 대표적인 독버섯이지만 세로로도 잘 찢어진다. 둘째, 가지를 버섯과 함께 먹으면 버섯의 독이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근거가 없는 말이다. 셋째, 은수저가 버섯에 닿아 색깔이 검게 변하게 되면 그것은 독버섯이라고 하는데, 알광대버섯처럼 유향을 함유한 독버섯일 경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독버섯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넷째, 그물버섯류에 속하는 버섯 가운데에는 독버섯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그물버섯류에도 독버섯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도 이런 예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술을 잘 마시고 술이 센 사람은 독버섯의 독성분에도 강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 역시 맞는 말이 아니다.

독버섯의 모양

- ① 흰알광대버섯 ② 마귀광대버섯 ③ 독우산광대버섯 ④ 갈황색미치광이버섯 ⑤ 노란다발



②



①



③



4



5